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 7련대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진행되었다



2 번 에서 계속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백두산혁명강군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총공격, 총대진합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김승철, 지영춘, 로홍세, 최창국, 박대상, 변영부, 한광호, 황근일, 군관들인 박용암, 승철, 홍철근, 김길선, 왕현철, 안철민, 김봉수, 최동철, 허광철, 한호석, 서항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대중운동의 불길속에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한 참된 영웅전사들과 총독관용사들이 수많은 배출되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었다고 말하였다.

역사의 준엄한 돌풍속에서도 인민군대 군사정치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경이적인 사면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군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펼쳐지게 된것은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모두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관용사들로 억세게 키우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배방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대중운동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군을 당과 혁명을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오중흠 7련대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당의 참된 선군혁명 투사들로 키우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인민군대앞에는 정치군사적위력을 배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은 당군건설의 총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당군건설의 총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군대가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당과 혁명보위의 전풍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오중흠 7련대의 니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지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회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군건설과 군관들에서 사상을 앞세우고 사상의 위력으로 오직 승리만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사상과 도덕을 원동력으로 혁명적당군을 건설하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의 명군체제가 튼튼히 선 신념과 도덕의리의 전위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든 부대들을 당중앙의 드라카 잇달은 천원요새로 만들며 일꾼들과 군인들을 당을 따라 선군혁명전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부대안에 당의 명령일화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 지시를 결사판철하는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수행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판철하는 진짜배기혁명가,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반체제급의식, 공산주의도덕관을 지닌 신념과 도덕의 최강자, 창조적 거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만드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전군에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싸움준비완성에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훈련의 실천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전쟁환경에 접근된 실용적실동훈련, 실용적투뇌훈련을 강도높이 벌리고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성적인 전투동원상태를 유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강철같은 규율은 인민군대의 생명이 라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구현하여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오중흠 7련대칭호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오중흠 7련대칭호를 쟁취한 부대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을 넣어 이 운동의 성과가 3대혁명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세계안에서 근위부대운동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운동에서 기본은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부대들이 특출한 공훈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옹위, 결사판철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이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도 근위병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인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전군이 1970년대와 같은 대중운동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군인들에게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누구나 대중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문제, 따라왔사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에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할데 대한 문제, 자강력제일주의기질을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문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주체혁명위업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은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져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번 대회는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켜 전군을 당 제7차대회의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총진군, 총동원대회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당군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가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다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에 한결같이 열쳐나 만리마시며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건군사

에 특기할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들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군대중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장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무정갓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한몫이 그대로 밟힐이 되고 봉화가 되어 전군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대중운동사상과 업적이 있고 주체의 대중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명도가 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 총대진하여 당과 혁명보위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데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기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리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장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지어주시며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흠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군대중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전군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뜻깊이 이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피사하였다.